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제35권 22호(나혜) 2015년 4월 26일

[묵상]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 놓는다

성소를 위한 기도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에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 이마르코, 박상대 마르코 신부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한삼만 요셉, 조명길 루시아& 최상기& 서진경 안드레아, 심묘택, 김영자, 홍찬기 대건 안드레아 & 심재순
	(생)서성용 베드로, 정린다 잼마 & 정엘리스 클라라, 장영진 안토니오, , 토동1반원가정들, 박현주 카타리나, 박상대 마르코신부,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4,8-12

화답송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독서 요한1서 (John) 3,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John)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색신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6) 겸손

겸손도 은사 식별의 중요한 기준이다.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겸손함을 보이신다. 그분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주님의 종”(루카 1,38) 이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청하셨고,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다.”(루카1,48) 고 주님을 찬미하셨다. 사실 성령과 더불어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광야를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성령과 함께하셨던 주님께서서는 친히 겸손을 보여 주셨고(마태 11,29 참조), 자주 겸손을 가르치셨다(마르10,42-44; 요한 13,14-17 참조).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필리 2,8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겸손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 또한 그는 참된 영의 식별 기준인 사랑을 제시하면서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고 가르친다(1코린 13,4 참조). 베드로 1서의 저자 역시 겸손을 강조한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1베드 5,5-6).

많은 성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살면서 겸손을 가르쳤다. 특히 신비 체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참된 영의 식별에서 겸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느 수도자의 글을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손의 부족을 지적한다. 곧 그 글에는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것이 좋은 것임을 남들이 믿도록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고, 기도 방법에는 겸손이 보이지 않으며, 감히‘하느님께 말씀 드렸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고 표현하면서 잘난 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부족을 이유로 그 수도자의 글이 참된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일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겸손보다는 자기 자랑을 내세우며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가 주장하는 은사는 참된 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계속>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243	205
봉헌	255	269	269
성체	382	305	291
파견	364	165	165

콩가루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

화목한 집안과 콩가루처럼 가족이 흩어진 집안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부자라고 하여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집안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노릇을 제대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꾀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족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애쓰는 사람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해 낸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내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그토록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증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식들인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비참함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산산이 조각난 인류 공동체입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비참함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로 말미암아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현대인은 극소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들만 살아남는 가운데,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속수무책으로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 버린 인간 사회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여,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분은 여느 인간들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사흘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콩가루처럼 흩어진 현대인들을 다시 일치시키시는, 곧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 주수옥 신부/대방동성당주임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코만 고시는 줄 알았습니다.
의식을 놓아버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도 숨을 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날숨에 아무것도 매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들숨에 더는 벌이의 고단함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얼룩 하나 없이
고요하고 비로소 편안해진 아버지의 숨소리를
오래 오래 바라봅니다.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소주일

오늘은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 구원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주님의 뒤를 따라 많은 이가 착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차 모국 방문 중이시며 30일(목요일)에 돌아오십니다.

- 신부님께 영육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월, 화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수요일부터 미사는 정상대로 있습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남가주 ME 제 75차 주말

- 일시 : 2015년 5월 1일(금) 7PM~3일(주일)5PM
- 장소 : 아씨시 피정의 집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91340
- 참가신청 : 양요한& 양젼마부부 ☎(714)955-2917

◆5월 안나회 모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 시간 : 5월17일(셋째주일) 11시 미사후
- 문의 : 이귀애 테레사 ☎ (562)256-6562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 학년 , 대학 과정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 또는 등록 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선발 방법 : 1차 신청서류 심사, 2차 면접
- 신청 기간 : 4/27/2015 - 5/31/2015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장학금의 수여 금액은 수혜 학생 1명당 \$ 2,000이며, 수여 예정일은 8/9/2015 (주일)입니다.
- 문의는 본당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26일(주일) *토서1,3반 : 샌드위치 (\$3)
* 주일학교 : 김밥 (7학년)
- 5월3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4)
* 주일학교 : 스파게티 (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상근 김영덕 김 욱 김원호 김정희 김 준 나경흠 박완철 박음전 박인식 반정미 배태임 송재훈 신경훈 안재만 오명섭 오세원 유일환 유철희 이영희 이효세 장영진 정규숙 조준제 최원석 최의수 최이원	성전헌금	강미순 김영덕 김 욱 김원호 김정희 김 준 나경흠 박음전 박인식 신경훈 안재만 오세원 유철희 이영희 이효세 정규숙 조준제 최원석
	합계:\$2,510		합계 : \$1,320
주일미사 헌금 : \$2,672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반 수업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2층
 - 기간 : 4월10일 부터 매주 금요일 (7:00~8:30pm)
-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섬프"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 준비물: 목주,세면도구, 수건, 침낭, 여벌옷 (두꺼운 옷),
성경, Open Mind

◆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FIAT SCHOLASHIP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 2015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FIAT SERVICE RECOGNITION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2th)
- GPA3.0이상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지경수 마태오 991-4838 4/12(일) 오후1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1(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4/19(일)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재호 펠렉스 848-0590 4/11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4/1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수 다미아노 625-3312 4/25(토) 오후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하데레사 634-6923 4/10(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 루시아 213-458-3356 4/1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257-8416 4/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텐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4/11(토) 오후 7시 강당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4/10(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관영 레오 793-6157 4/17(금) 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정자 릿다 890-1778 4/19(일) 오후 4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617-3568 4/14(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